

노년기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부교수 박 미 석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Associate Professor : Mee Sok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at constructed the causations among the leisure resources, health perception, leisure attitude, leisure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For the purpose, 208 elderly who were over sixty years old and inhabited in Seoul were given questionnaire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by means of a 1:1 personal interview method. A Measurement model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stimates by Maximum Likelihood method(ML method) utilizing LISREL 8.51 ver.

The majo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 Goodness of fit is good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presented in the study. 2) The higher their leisure resource is, the higher health perception is, the higher leisure attitude is the more leisure satisfaction. 3) The important valuable factor which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was the leisure satisfaction. It showed powerfully if the elderly participate enjoyment, self-development and positive leisure activity, their leisure satisfaction would increase, consequently the Quality of life would be improved.

주제어(Key Words): 노인여가(leisure of the elderly), 여가자원(leisure resource), 건강인지(health perception), 여가태도(leisure attitude), 여가만족(leisure satisfac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1999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인구학적 특성은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01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22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14%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OECD가 예상하는 대로 우리 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2년밖에 안 걸린다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이 걸린 국가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전개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경제, 복지, 의료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투게나마 노인의 소득 보장, 건강보장, 노인교육 및 문화활성화, 실버산업 등 4개 부문 45개 과제를 선정해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한국경제, 2002년 1월 3일자).

국가·사회적으로 노년기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에 비하면 노후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적 노인복지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 노인들은 50년대에 전쟁과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60-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며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이다. 이에 개인적으로도 노후나 복지에 대비한 어떠한 준비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애 후반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반적인 노년기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사회적·가정적 역할상실, 생활시간적 무위고 등이 지적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 추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당면한 생활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노인들의 중대한 문제는 생활의 대부분인 여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있게 보내는 것이며, 노년기의 여

가생활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여가만족을 통하여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결과들(Sneegas, 1986, 박미석, 1996; 이두희·박미석; 1998)에서도 밝혀진바 있으며, 여가가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차지하는 여가의 위상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 및 건강상의 문제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년기 여가생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과의 관련성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할 뿐, 삶의 질과의 연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몇몇 여가활동참여정도 및 여가만족이 노인의 생활만족 또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선미, 1991; 김명자, 1994; 김애련·한내창, 1997; 홍성희, 1998)은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통한 단순한 차이검정이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한 관련성 예측을 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회귀식은 예측변수들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구조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변인들의 인과관계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이순목,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노인의 삶의 질에 여가생활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기존의 이론들을 고찰하여 삶의 질에 대한 여가자원 및 건강인지, 여가태도, 여가만족의 체계적인 인과모형을 제시하고, 공변량구분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노년기 여가관련변인들이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노년기 은퇴, 역할 축소, 고독, 소외감 등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치유시킬 수 있는 노인의 여가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에 강력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노인의 여가, 생활만족, 삶의 질 등에 관한 연구는 가정학, 사회학, 보건학, 체육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져 왔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된 연구결과들과 이론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만족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노인의 여가만족도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원인변인들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자원 및 건강인지수준, 여가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 등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노년기 여가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과 조기정년 증가 등으로 인해 오늘날 노인들은 Burgess의 말처럼 역할 없는 역할(roless role)에 사로잡혀 장수의 축복 속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고민을 안고 있다.

일반적인 여가의 기본적 속성은 첫째 원칙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하는 일과 반대되는 것, 둘째 즐거운 기대와 즐거운 것으로 회상될 수 있는 것, 셋째 자발적이고 의무성이 적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넷째 심리적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 다섯째 문화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것, 여섯째 중요성과 관심의 정도가 다양한 것, 일곱째 가끔 놀이의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 등이다(Kaplan, 1960).

그런데 노년기의 여가는 개념과 활동특성에 있어서 청장년기 여가의 개념과는 약간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년기 여가는 일반적인 여가개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가정적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갖게 되는 여유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역할 없이 막연하게 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가로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 노인여가의 경우 후자의 소일적인 여가활동이 많다.

노인의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사회활동이론과 사회유리설을 들 수 있는데, Neugarten과 Havighurst 등(1961)에 의해 제기된 사회활동이론에

서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역할에서 후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사회활동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노화에 적절히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반면 Cumming과 Henry(1979)에 의하면 사회유리설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유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노인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보다는 위안이나 휴식 등 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본다.

하지만 老少를 불구하고 여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유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감 해소, 자기존중과 자아정체성 유지 그리고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노년기에 촉발되는 경제적 문제와 신체적, 심리적 소외감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노후의 적응은 물론 만성화된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여가선용은 삶의 질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여가자원 및 건강인지, 여가태도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반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며, 또한 내외적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한 여가 장애(leisure barriers, leisure constrains)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여가장애는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 즉 내적, 외적(Francken & VanRaaij, 1981), 외적 자원, 시간, 승인, 능력과 사회성(McGuire, 1984), 시간 장애, 비용 장애, 개인적 장애, 가족적 장애, 사회적 장애(김외숙, 1991) 등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Iso-Ahola와 Mannell(1985)은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적 능력이나 적성, 태도 및 동기의 부족을 지각하는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규범과 역할, 의무,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과 양에서 장애를 경험

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금전이나 시간, 시설, 기회의 부족과 같이 여가활동참여에 실제적인 장애를 주는 요소를 물리적 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Crawford와 Godbey(1987)는 여가제약을 여가활동에 대한 적성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이전의 사회화 경험 등 여가활동에 작용하는 개인의 심리상태를 말하는 내적 제약,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대인적 제약, 가족생활주기, 시간, 비용, 기회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이선미(1991)의 연구에서는 여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50대에서는 시간부족, 피로, 건강상태를 60대에서는 돈의 부족, 건강상태, 고령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물리적인 여가자원과 신체적인 건강수준, 개인적으로 여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또는 중요도 등을 여가선호 및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여가관련 조건들이 잘 갖추어질 때 궁극적으로 여가만족도와 행복감이 증대될 수 있다(이두희·박미석,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만족과 삶의 질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고려하여,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 여가자원, 건강인지, 여가태도를 선정하였다.

1) 여가자원

본 연구에서는 여가비용, 여가시간, 여가시설을 물리적인 여가자원의 측정개념으로 정의한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년기에는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가활동에 있어서 여가비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인협·최성재(1987)는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노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 뿐 아니라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까지 하므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고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의 용돈사용량과 용돈수준에 따라 여가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결과(원형중, 1994; 이현숙, 1994; 정미자, 1997)가 있으며, 홍성희(1998), 김성연·박미

석(200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월평균 용돈이 여가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들은 생활의 여유를 갖지 못했던 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낸 세대로 여가활동을 즐겼던 경험과 여가활동 기술의 결여로 주어진 많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이희범, 1994). 따라서 여가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여가시간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여가는 시간개념(Shaw, 1986), 활동개념(Durmazedier, 1967) 및 심리적 경험 개념(Iso-Ahola, 1979) 등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간개념 측면에서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여가시간의 정도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기존 선행연구들(홍성희, 1998; 김성연·박미석, 2000)은 활동개념 측면에서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측정하여 여가활동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이 높다는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가시설수준은 노인의 여가활동참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여가시설이 풍부한 지역에 사는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비교해 여가활동참여도 차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미자(1997)에 의하면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은 종교시설, 공원, 친구집, 경로당의 순으로 대부분 비공식적인 여가시설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태현 등(1999)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여가활동에 있어서 여가시설의 접근용이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희·박미석(1998)의 연구에 의하면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정도가 여가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설수준은 여가자원으로서 노년기 여가만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여가비용, 여가시간, 여가시설을 측정개념으로 한 여가자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1: 여가자원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는 증가한다.

2) 건강인지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은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요소이며, 노년기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의 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Riley와 Foner(1968), Edward와 Klemmack(1973)는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한편 Medley(1976)는 객관적인 건강상태보다는 자기보고식(self-report)의 주관적 건강평가가 생활만족에 더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하였다.

정미자(1997)의 연구에 의하면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송정선(1997)의 연구에서도 노인 자신이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여가활동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노인의 주관적 건강은 여가만족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원형중, 1994, 한혜원,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인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 건강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여가만족도는 증가한다.

3) 여가태도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조건 외에도 여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또는 비선호 등의 심리적인 여가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Ragheb(1980)는 여가태도를 여가활동과 그 효과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나타내는 인지적 요소,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를 나타내는 정의적 요소, 여가활동에 대한 현재 및 과거의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행동적 요소로 구성하였다.

한편 여가태도를 여가에 대한 중요성 정도로 측정하는 홍성희(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홍성희·김성희(1997)의 연구에서 여가태도가 적극적인 노인이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정우·이윤미(1997)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여가태도를 가질수록 소일활동을 제외한 목적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만족을 여가자체에 대한 흥미, 여가생활을 통한 보람, 자기성취획득 등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진 노인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리라 예상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가태도와 여가만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H3: 여가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여가만족도는 증가한다.

3. 여가만족과 삶의 질

여가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 자아실현 및 자기개발 그리고 건강 및 행복의 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여가의 역할은 여가활동 경험 및 상황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 갖는 인식 및 감정의 상태가 바람직하고 긍정적일 때 보다 증대될 수 있다. 즉 여가활동 자체보다는 그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여가의 본질적 기능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여가만족이란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 유도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Beard & Ragheb, 1980). 즉 일반적인 여가경험에 대해 즐거워하거나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여가의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야기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동의하고 있으며, 여가만족은 삶의 질의 기본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한혜원, 2000). Ragheb와 Griffith(1982)는 여가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았으며,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안하였다. 또한 Kelly와 Steinkamp(1987), Han(1988), Won(1989) 등의 연구는 여가활동의 유형이나 활동수준 같은 양적인 측면보다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가만족과 몰입경험과 같은 질적인 측면이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여가만족과 삶의 질의 긍정적인 관계는 선행연구들(Campbell 등, 1976; London 등, 1977; Fainagan, 1978)에서 일치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홍성희, 1998; 한혜원, 2000)에서도 노년기의 여가만족도는 삶의 질 또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두희·박미석(1998)의 연구에서는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해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4: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증가한다.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상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통합하여 이론모형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본 이론모형은 여가자원에 대한 충족정도와 건강인지정도, 여가태도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만족이 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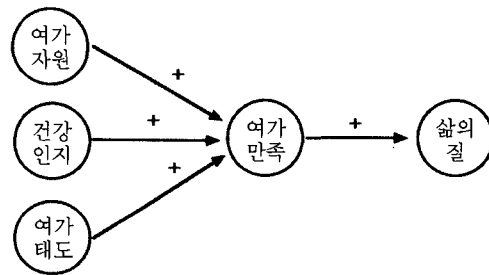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하고 있다.

<그림 2>는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까지 모두 고려한 여가만족과 삶의 질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이며, 측정변인명과 구체적인 항목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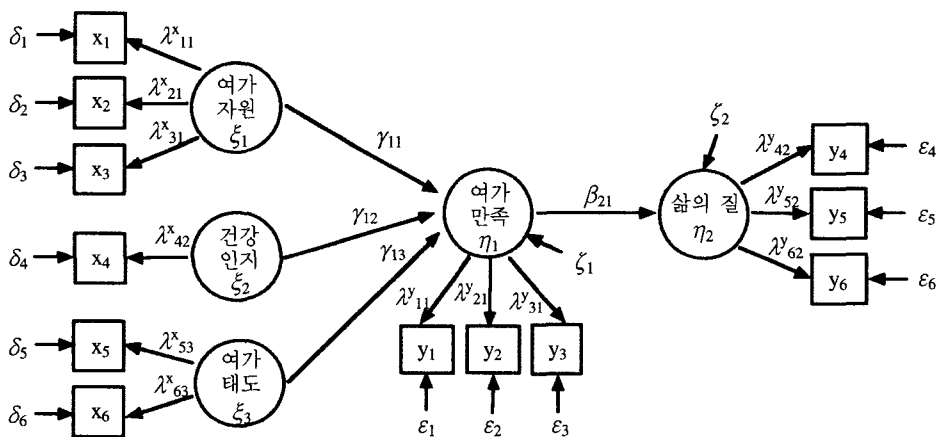
2.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잠재변인(여가자원, 여가태도, 여가만족, 삶의 질)은 각각 기존의 문헌에서 제안하고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구성된 다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그림 1> 이론모형



<그림 2> 구조방정식모형

〈표 1〉 변인명과 측정항목

| 잠재변인 | 측정변인 | 항 목 | 척 도 |
|------|----------------------------|---|----------------------------------|
| 여가자원 | 여가비용(x ₁) | 내가 현재 사용하는 여가비용은 적당하다 | 5점 리커트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여가시간(x ₂) | 내가 현재 즐기는 여가시간은 적당하다 | |
| | 여가시설(x ₃) | 여가를 즐기기에 주위 여가시설은 적당하다 | |
| 건강인지 | 건강인지 수준(x ₄) | 귀하는 활동하기에 건강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점 리커트(매우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 여가태도 | 여가중요도 (x ₅) | 여가활동은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 꼭 필요한 것이다 | 5점 리커트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자기개발(x ₆) | 휴식보다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중요하다 | |
| 여가만족 | 흥미보람 (y ₁) | 나의 여가활동들은 매우 흥미롭다 | 5점 리커트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자기성취 (y ₂) | 나는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낸다 | |
| | 전반적(y ₃) | 나의 여가활동들은 나에게 자기확신을 준다 여가활동들은 나에게 성취감을 준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 |
| | | | |
| 삶의 질 | 정서적 (y ₄) | 자신의 삶에 대한 감정을 정서적 언어로 표현 (지겹다-흥미롭다/슬프다-즐겁다/공허하다-충만하다) | 7점 어의차이 |
| | 인지적 (y ₅) | 자신의 삶에 대한 감정을 인지적 언어로 표현 (가치없다-가치있다/비관적이다-희망적이다/ 보상감이없다-보상감이있다/운이나쁘다-운이좋다) | |
| | 전반적(y ₆) | 자신의 삶 전반에 관한 만족도(매우 불만족-매우 만족) | |
| | | | |

건강인지 변인은 노인이 직접 느끼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지수준을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여가자원 변인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제반자원이 되는 여가비용, 여가시간, 여가시설에 대한 충족정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여가장애에 대한 김의숙(1991)의 연구와 여가여건을 여가만족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으로 연구한 이두희·박미석(1998)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여가태도 변인은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 정도로서, Ragheb(1982)와 홍성희·김성희(1997)의 연구를 기초로 2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즉 여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으로 측정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적 경향과 노년기 여가활동으로 크게 양분되는 소극적인 휴식여가활동과 적극적인 자기개발적 여가에 대한 선호도이다.

여가만족 변인은 여가활동 경험 후 여가활동자체에 대한 만족정도,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Beard와 Ragheb(1980)가 개발한 여가만족척도(LSS: Leisure Satisfaction Scale)와 이두희·박미석(1998)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여가활동이 특징적으로 휴식적, 소극적 여가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이러한 활동유형으로도 느낄 수 있는 흥미·보람, 자기성취, 전반적 만족정도를 여가만족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삶의 질 변인은 박미석(1996)이 제안한 KQOL (Korean Quality of Life) 척도를 사용하였다. KQOL은 기존의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Cronbach's = .91)를 보였던 척도이다. 이 척도는 전부 7개의 어의차이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와 삶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인지적, 전반적의 3개 차원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으로 1999년 7월 16일부터 8월 30일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최종 208 case가 분석대상으로 이용되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1:1 면접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서울시 전역의 노인관련 단체, 복지회관, 노인정, 공원, 서울역, 거리 등에서 무작위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LISREL 8.5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였다. 공분산은 구조방정식모형 방법론의 가정을 만족시켜주며, 인과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이론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공분산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Joreskog & Sorbom, 1993; 배병렬, 2000).

한편 모형의 식별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잠재변수는 결정된 척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은 잠재변수들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계량화된 척도를 가지지 못함에 기인한다(Joreskog & Sorbom, 199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인적재모수 가운데 하나를 0.0이 아닌 값으로(전형적으로 1.0) 제약을 가하는 방법과 두 번째, 잠재요인의 모집단 표준편차와 동일하도록 측정단위를 직접 표준화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런데 8 version 이상의 Lisrel 프로그램에서는 만약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독립잠재요인과 종속잠재요인들을 표준화해준다(김기영·강현철, 2001). Joreskog & Sorbom(1996)은 잠재변수들의 표준화가 잠재변수들의 측정단위들을 할당하는 데 있어 보다 유용하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단위를 직접 표준화하였다.

또한 건강인지 변인은 하나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단일지시자(single indicator)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오차변수의 분산을 특정 값으로 고정하여 식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김기영·강현철,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건강인지에 대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이 실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측정오차가 0.00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이 변인의 신뢰도는 1.00이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측정모형의 추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표 2>와 같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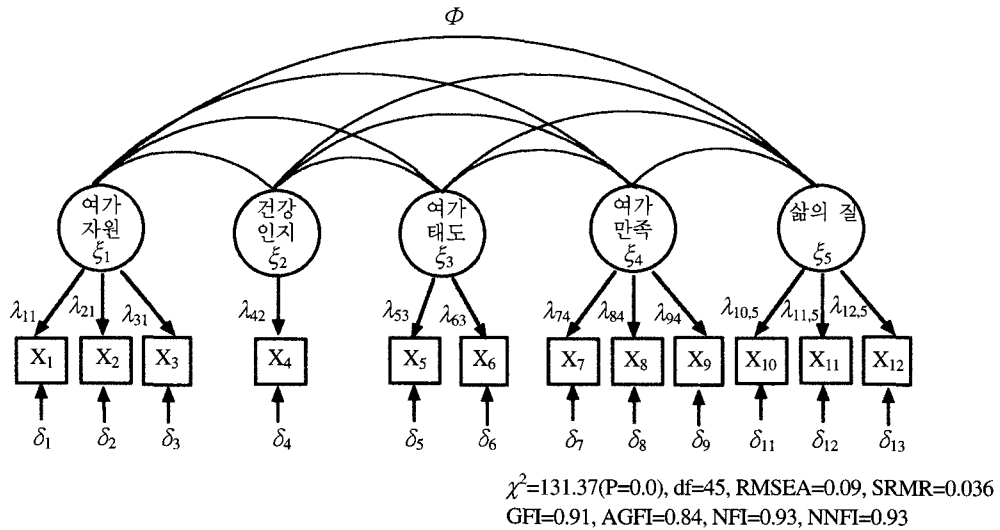
2. 측정 모형의 추정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 앞서, <그림 3>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ML(Maximum Likelihood Method)법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N=208)

| 변 인 | 구 분 | 빈도(%) | 변 인 | 구 분 | 빈도(%) |
|---------|--------------|-----------|------|----------|-----------|
| 성별 | 남자 | 95(45.7) | 취 업 | 유 | 25(11.9) |
| | 여자 | 113(54.3) | | 무 | 183(88.1) |
| 연령 | 60대 | 94(45.2) | 배우자 | 유 | 112(53.7) |
| | 70대 | 67(32.2) | | 무 | 96(46.3) |
| | 80대 | 47(22.6) | 학 력 | 무 학 | 41(19.5) |
| 월평균 생활비 | 50만원 미만 | 60(28.7) | | 초등졸 | 61(29.1) |
| | 50-100만원 미만 | 71(34.2) | | 중 졸 | 43(20.9) |
| | 100-200만원 미만 | 66(31.5) | | 고 졸 | 39(18.8) |
| | 200만원 이상 | 11(5.6) | 대졸이상 | 24(11.7) | |



〈그림 3〉 측정모형 I

으로 추정하였다. 전체 측정 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그림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χ^2 값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적으로 χ^2 의 값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다른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Joreskog & Sorbom, 1996).

χ^2 통계량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측정지수 RMSEA(근사오차자승평균의 이중근)는 0.09로 일반적인 수용수준인 0.05-0.08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지만, Steiger(1990)가 제안한 수용수준(0.10이하)에 해당한다. GFI는 0.91로 권장수용수준 0.90을 상회하고 있지만, AGFI는 0.84로 한계선에 있다. 그러나 최악의 모형으로부터 연구모형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인(이순목, 1990) NFI와 NNFI는 각각 0.93, 0.93으로 모형이 자료와 잘 부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 분석자료와 모형에 의한 재생산자료를 비교하여 각 측정치의 평균적 차이를 보여주는 SRMR(0.036)도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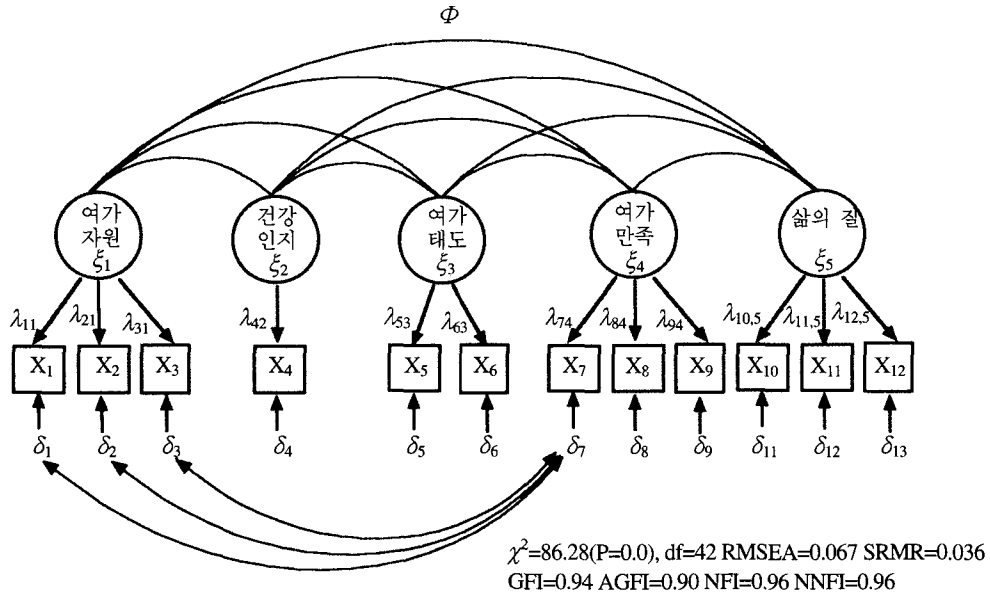
따라서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 모형의 타당성은 큰 무리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추가지수(Modification Index)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여가자원의 측정변인인 여가비용(δ_1), 여가시간(δ_2), 여가시설(δ_3)에 대한 충족도 변인의 잔차항이 전반적인 여가만족도의 잔차항(δ_4)과 상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여가만족도의 측정항목이 모든 것을 고려한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정도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여가생활에 필요한 자원도 함께 고려해 응답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므로 각각 여가비용과 전반적 여가만족, 여가시간과 전반적 여가만족, 여가시설과 전반적 여가만족 변인간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개념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수정지수들은 모두 10이상의 값으로 적합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들 각각 측정치의 잔차항의 관련성을 모형에서 허용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측정모형의 부합도가 증가하였다.

수정한 〈그림 4〉 측정모형의 평가지표는 〈표 3〉과 같다. 요인적재치와 유의도로 판단할 때, 각각의 측정치가 이론변인을 잘 측정해 주고 있다. 또한 다중상관자승치도 각각의 측정치들이 잠재변인의 좋은 측정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정한 측정모형(그림 4)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이하 분석에서는 측정모형 II로 구



<그림 4> 측정모형 II

<표 3> 측정모형의 평가지표

| 변 수 | | R ² | 특징수 | 표준화계수 | T값 | 표준오차 | 특징수 | 표준화계수 | T값 | 표준오차 |
|------|-----------------|----------------|-------------------|-------|-------|-------|------------------|-------|------|-------|
| 여가자원 | X ₁ | 0.77 | λ ₁₁ | 0.88 | 15.12 | 0.057 | δ ₁ | 0.23 | 5.43 | 0.041 |
| | X ₂ | 0.52 | λ ₂₁ | 0.72 | 11.48 | 0.067 | δ ₂ | 0.48 | 8.76 | 0.062 |
| | X ₃ | 0.42 | λ ₃₁ | 0.65 | 9.94 | 0.068 | δ ₃ | 0.58 | 9.25 | 0.069 |
| 건강인지 | X ₄ | 1.00 | λ ₄₂ | 1.00 | 20.35 | 0.049 | δ ₄ * | 0 | 0 | 0 |
| 여가태도 | X ₅ | 0.63 | λ ₅₃ | 0.79 | 12.95 | 0.053 | δ ₅ | 0.37 | 7.54 | 0.037 |
| | X ₆ | 0.77 | λ ₆₃ | 0.88 | 14.85 | 0.064 | δ ₆ | 0.23 | 4.90 | 0.054 |
| 여가만족 | X ₇ | 0.66 | λ ₇₄ | 0.81 | 13.96 | 0.055 | δ ₇ | 0.34 | 8.67 | 0.034 |
| | X ₈ | 0.87 | λ ₈₄ | 0.94 | 17.64 | 0.048 | δ ₈ | 0.13 | 5.78 | 0.018 |
| | X ₉ | 0.79 | λ ₉₄ | 0.89 | 16.18 | 0.054 | δ ₉ | 0.21 | 7.83 | 0.026 |
| 삶의 질 | X ₁₀ | 0.56 | λ _{10,5} | 0.75 | 12.32 | 0.075 | δ ₁₀ | 0.44 | 9.02 | 0.074 |
| | X ₁₁ | 0.83 | λ _{11,5} | 0.91 | 16.50 | 0.070 | δ ₁₁ | 0.17 | 5.09 | 0.052 |
| | X ₁₂ | 0.83 | λ _{12,5} | 0.91 | 16.38 | 0.060 | δ ₁₂ | 0.17 | 5.30 | 0.0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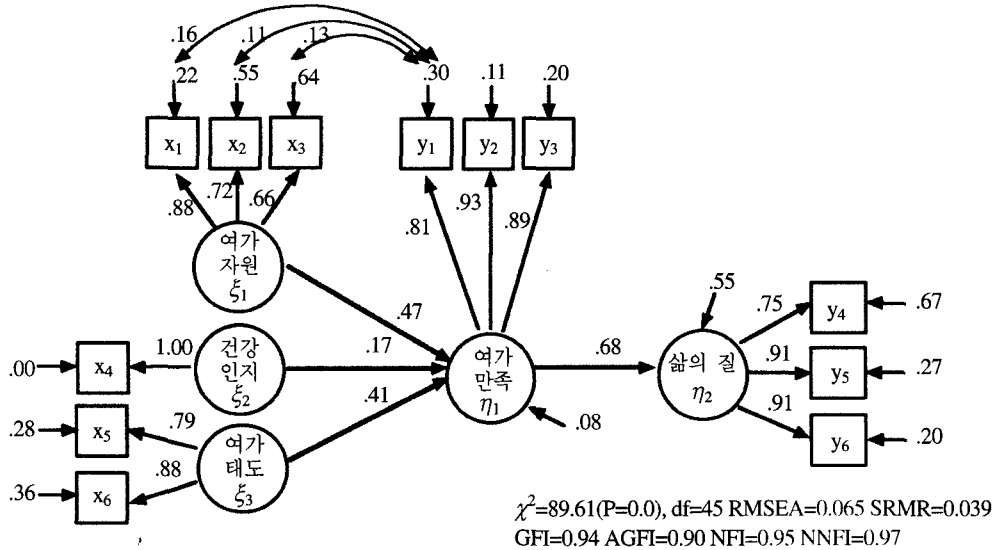
* 건강인지는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오차가 없이 구성개념을 완벽히 측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측정오차를 0.0으로 설정하였다.

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최종모형)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구조방정식 모형

은 <그림 5>와 같으며, 부합도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적합지수를 확인한 결과, χ^2 통계량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측정지수 RMSEA(근사오차자승평균의 이중근)는 0.065로



<그림 5> 구조방정식 최종모형

수용수준이다. 또한 GFI는 0.94, AGFI는 0.90, NFI와 NNFI는 각각 0.95, 0.97로 모형이 자료와 잘 부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SRMR(0.039)도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가설검증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므로, 구조적인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우선, 여가자원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H1)은 지지되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자원은 여가만족에 유의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mma_{11}=0.47$

$t=5.42$). 구체적으로 여가비용, 여가시간, 여가시설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여가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H2)도 지지되었다($\gamma_{12}=0.17$, $t=3.29$). 따라서 노년기에는 건강인지수준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다.

여가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여가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H3)도 지지되었다($\gamma_{13}=0.44$, $t=7.11$). 즉 여가활동을 삶의 필수영역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인 휴식활동 또는 소일활동보다는 자기개발적인 여가활동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때 여가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기존의 여가만족도에 대한 여가태도의 영향력 연

<표 4> 가설검증 결과

| 가설 | 특징수 | 표준화계수 | T값 | 표준오차 | 결과 |
|----|---------------|-------|------|-------|----|
| H1 | γ_{11} | 0.47 | 5.42 | 0.086 | 채택 |
| H2 | γ_{12} | 0.17 | 3.29 | 0.053 | 채택 |
| H3 | γ_{13} | 0.44 | 7.11 | 0.061 | 채택 |
| H4 | γ_{21} | 0.68 | 8.56 | 0.079 | 채택 |

〈표 5〉 삶의 질에 대한 직·간접 및 총효과(표준화계수)

| 원인변인 | 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R ² |
|------|------|------|------|------|----------------|
| 여가자원 | - | - | 0.47 | 0.47 | 0.46 |
| 건강인지 | - | - | 0.17 | 0.17 | |
| 여가태도 | - | - | 0.43 | 0.43 | |
| 여가만족 | 0.67 | - | - | 0.67 | |

구가 미흡한 실정임으로 더욱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변인인 삶의 질은 여가만족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4(H4)는 지지되었다($\beta_{21}=0.67$, $t=8.56$).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두희·박미석(1998)의 연구결과가 노인들에게도 해당됨을 확인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년기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성취감,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와 보람 획득,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만족감 평가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여가자원, 건강인지, 여가태도는 여가만족 변인을 통해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는 삶의 질에 대한 직·간접 및 총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년기 여가와 삶의 질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이상과 같이 매우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개의 가설들도 모두 지지되었다. 특히 여가비용, 여가시간, 여가시설의 충족도로 측정된 여가자원이 좋을수록 직접적으로는 여가만족도가 간접적으로는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여가자원의 개선을 통하여 여가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인 건강인지수준은 여가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여가만족도가 증가하고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즉 여가자원, 건강인지, 여가태도는 모두 흥미와 자기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동기요소로 작용하여 이러한 여가활동을 통해 흥미, 보람, 자기성취, 전반적인 여가만족을 더욱 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여가만족에 대한 여가활동유형의 영향력을 구조적인과관계로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

한편 노년기 여가만족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가활동 자체보다는 여가활동을 통해 보람과 자기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때, 삶의 질은 증진된다는 기존의 제안을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선 노년기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인대상의 교육과 일반인 대상의 은퇴준비교육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손쉽게 자기개발적이고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의 접근이 용이한 노인정, 복지관, 구청 또는 동사무소 차원에서 여가비용보조, 여가시설 마련 등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인들 스스로는 일상의 자유시간을 휴식이나 소일활동으로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통해 여가만족을 증진시키는 자각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노인세대의 가족원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년기의 여가만족과 삶의 질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입증을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연구에서는 노년기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해 여가와 관련된 잠재변인, 측정변인과 측정항목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일반인과 구별된 노년기 여가개념에 적절하게 변인항목을 구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기영, 강현철(2001).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 자유아카데미.
- 김명자(1994).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향유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김성연, 박미석(2000). 도시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67-84.
- 김애련, 한내창(199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275-288.
- 김의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II. 한국노년학, 19(1), 61-82.
-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2.
- 배병렬(2000).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대경.
- 송정선(1997).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원형중(1994). 여가활동참여도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4(2), 90-104.
- 이두희, 박미석(1998). 여가와 삶의 질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소비자학연구, 9(4), 101-117.
- 이선미(1991). 중, 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1990). 공변량구조분석. 성원사.
- 이정우, 이윤미(1997). 중, 노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 및 여가활동참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1-16.
- 이현숙(1994). 노인의 여가활동 효과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 이희범(1994). 노인의 바람직한 여가선용을 위한 고찰. 홍익대 홍익논총, 26.
- 장인협, 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미자(1997). 한국노인의 여가실태와 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한국경제. 2002년 1월 3일자.
- 한혜원(2000). 노년기 여가참여와 삶의 질 인지와의 관계.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 홍성희, 김성희(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53-267.
- Beard, J.B. & Ragheb, M.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0-33.
- Campbell, A., Convers P.E., & Rod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rawford, D.W., & G. Godbey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Sciences*, 9, 119-127.
- Cumming E., & Henry W.E. (1979). *Growing old*. N.Y.: Basic Books Publishing Co., Inc.
- Durmazedier, J.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translated by S.E. McGure, N.Y.: John Wiley and Sons Inc.
- Edward, N.J., & Klemmack, D.L. (1973). Correlation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 497-502.
- Falnagan, J.C. (1978). A research approach to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American Psychologist*, 33, 138-147.
- Francken, D.A. & W.F. VanRaaij (1981).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 337-352.
- Han, S.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flow in elderly Korean immigrants. In M., Csikszentmihalyi, & I.S.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y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Cambridge University, 138-149.

- Iso-Ahola, S. (1979). Some social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perceptions of leisure: Preliminary evidence. *Leisure Sciences*, 2, 305-314.
- Iso-Ahola, S., & R. Mannell (1985). Social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leisure, in Wade, M.G.(1985). *Constraints on Leisure*.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Joreskog, K.G., & Sorbom, D. (1993),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Joreskog, K.G., & Sorbom, D. (1996).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Kaplan, M. (1960). The uses of leisure in C. Tribbitts (ed). *Hand book of Social Gerontology*, 409.
- Kelly, J.R., & Steinkamp, M.W. (1987). Later-life Satisfaction: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 9, 190-200.
- London, M., Crandall, R., & Fitzgibbons, D. (1977).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leisure: Activities, needs, peopl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 252-263.
- McGuire, F.A. (1984). A factor analytic study of leisure constraints in advanced adulthood. *Leisure Science*, 6, 313-326.
- Medley, M.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4.
- Neugarten, B.L., Havighurst, R.J., & Tobin, S.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 Ragheb, M.G. (1980). Interrelationship among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2), 138-149.
- Regheb, M.K. & Griffith, C.A. (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 295-306.
- Riley, W.W., & Foner, A. (1968). *Aging and society: Inventory of research finding*. N.Y.:Russell Sage Foundation.
- Shaw, S.M. (1986). Leasure, recreation or free time? Measuring time usag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3).
- Sneegas, J.J. (1986).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in middle and later life adults: Perceived social competence, leisure participation, and lif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246-258.
- Steiger, J.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Won, H.J. (1989). The daily leisure of Korean school adolescents and its relationship to subjective well-being and leisure fun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